

2014.4/4분기 미국 GDP 성장률(2.6%) 발표 및 시장의 평가

□ 금일 발표된 2014.4/4분기 미국 GDP 성장률(전기비 연율, 속보치)은 전분기(5.0%)보다 다소 하락한 2.6%를 기록(시장예상치 3.0%)

○ 이는 **개인소비**(3.2% → 4.3%)가 증가폭이 확대되어 2006.1/4분기(4.9%)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입(-0.9% → 8.9%)의 큰 폭 증가로 **순수출**(GDP성장에 대한 기여도 0.8%p → -1.0%p)이 감소하고 국방비 축소(16.0% → -12.5%) 등으로 **정부지출**(4.4% → -2.2%)도 크게 줄어든데 주로 기인

— 한편 재고증감(GDP성장에 대한 기여도: -0.0%p → 0.8%p)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 **설비투자**가 2009.2/4분기(-13.0%) 이후 가장 큰 폭 감소(-1.9%)함에 따라 비주택투자 증가폭은 크게 축소(3/4분기 8.9% → 4/4분기 1.9%)

○ 이에 따라 민간 최종수요(개인소비+설비투자+주택투자)는 4% 수준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감

	13.1/4	2/4	3/4	4/4	14.1/4	2/4	3/4	3/4
■ 민간 최종수요 증가율(%)	3.4	2.3	2.9	4.2	1.0	3.8	4.1	3.9

○ 한편 2014년 GDP성장률은 전년(2.2%)보다 소폭 높아진 2.4%를 기록

GDP 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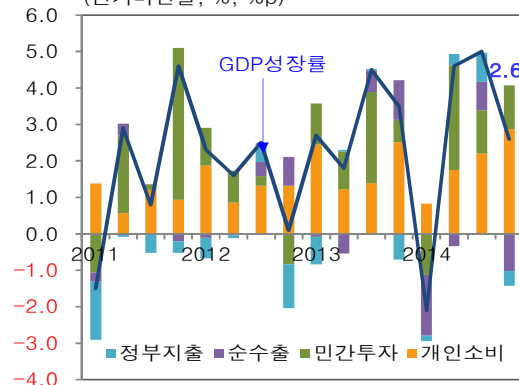
(%, 전기비 연율)

	2013		2014		
	연중	연중	2/4	3/4	4/4
GDP	2.2	2.4	4.6	5.0	2.6
개인소비	2.4	2.5	2.5	3.2	4.3
민간투자	4.9	6.0	19.1	7.2	7.4
비주택 (설비)	3.0	6.1	9.7	8.9	1.9
주택	4.6	6.3	11.2	11.0	-1.9
주채	11.9	1.6	8.8	3.2	4.1
재고증감 ¹⁾	0.1	0.2	1.4	-0.0	0.8
순수출 ¹⁾	0.2	-0.2	-0.3	0.8	-1.0
수출	3.0	3.1	11.1	4.5	2.8
수입	1.1	3.9	11.3	-0.9	8.9
정부지출	-2.0	-0.2	1.7	4.4	-2.2
국방비	-6.6	-2.2	0.9	16.0	-12.5

주 : 1)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(%)

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

(전기비연율, %, %p)



□ 시장에서는 순수출 및 정부지출 감소에도 개인소비가 크게 확대되며 4/4분기 GDP 성장률이 추세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고용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민간 부문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○ 한편 2015.1/4분기 GDP 성장률은 재고증감의 기여도가 줄어들고 에너지 관련 기업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비주택투자 축소가 예상되나 일시적이었던 정부지출 감소가 완화되는 가운데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2% 중 후반 수준의 양호한 경기회복세*를 보일 것으로 전망

*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에의 부정적 영향, 유로존 디플레이션 위협 등의 글로벌 위험 요인에도 미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는지에 대해 기업 및 가계는 더욱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